# 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선망조상님과 인연영가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선희궁 원당에 만년위패를 봉안하고 그곳에 아미타불 부처님을 새롭게 모시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서방정토의 극락세계에 머무르시면서 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을 성불시키시는 불보살님이십니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한없는 광명을 지니시는 부처님으로
뭇 생명 있는 자들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주사의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는
불자님들께 참으로 뜻깊은 불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그 인연의 공덕으로 현세의 무량복덕을
누리시고 내세에서도 극락왕생하시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과 중생들이 아미타불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희궁원당 아미타불 조성불사** : 한가족 **50**만원 (복장에 이름 넣어드립니다)
**불단조성불사** : 한가족 **30**만원

- **선희궁원당 불사계좌안내** : 농협 **351-1333-5675-83** (법주사)
- **문의 및 안내** :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4|10

**부처님 말씀** 마음의 때를 씻는 법 / **이달의 법문** 행복한 삶 / **주지스님 법문** 팔정도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 **강로의 글** 법설과 의설에 대하여(1) / **걸망메고** 광명진언 다라니 / **수행여화** 바람이 낙엽을 쓸어줄 것인데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생일불공** / **국화축제** / **성보박물관 개관기념 – 그리고 만들고** / **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부처님 말씀

# 마음의 때를 씻는 법

손다야치 범지가 부처님께 사뢰옵기를,
“세존이시여 호수라고 하는 개천이 있사온데, 이곳에 하루 세 번씩 목욕을 하면
마음의 때가 씻어진다고 하신 부친의 말씀에 의하여 매일 세 번씩 꼭 목욕을 하였으나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으므로 이제 와서는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때가 잘 씻어지옵니까?”하니,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대답하시기를,
“손다야치 범지야, 몸에 때가 많은 사람이라면 범지뿐만이 아니라 수천 사람이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 해도 때를 씻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때는 씻을 수 없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목욕하는 법을 배웠느냐?”
범지가 대답하되,
“저의 부친에게서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시되,
“너의 부친은 도를 얻었는가?” 하니 범지가 대답하되,
“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도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니 마음만 단정하게 하면 그 뜻이 청정하여지나니
청정하면 곧 이것이 도를 얻어짐이 되느니라.”
범지가 꿇어앉아 부처님께 여쭙기를,
“이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이로써 마음을 깨끗이 씻었사오니
어두운 가운데 등불을 얻은 것과 같이 눈이 뜨이옵니다.” 하고 찬탄하였다.



〈손다야치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4 10 | 통권 393호




2 부처님 말씀 마음의 때를 씻는 법
4 이달의 법문 행복한 삶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팔정도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정덕 스님
10 감로의 글 법설法說과 의설義說에 대하여(1) 고광 스님
13 걸망메고 광명진언 다라니 지현 스님
16 수행여화 바람이 낙엽을 쓸어줄 것인데 현진 스님
18 법주사 행사일정
19 법주사 소식
20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광명진언기도
21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생일불공
22 국화축제
23 성보박물관 개관기념 – 그리고 만들고
24 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8(단기4357)년 10월호 통권 393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남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 행복한 삶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원한 가진 이들 속에서 노여움 없으니 나의 생生은 이미 편안하다네.
사람들은 누구나 원한을 품고 살지만 나는 원한을 여읜 자로 산다네.
(我生已安 不慍於怨, 眾人有怨 我行無怨)

《법구경》〈안녕품安寧品〉에 나오는 첫 게송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는 인도 말이지만, 번역하면 감인세계堪忍世界라고도 합니다.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와 전쟁, 테러 등 각종 재난 소식도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에 이어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폭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니 OECD 회원국 중 우울증 환자 비율 1위, 자살률 1위,
출산율은 끝에서 1위를 기록한 나라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겨우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로는
중간 이상이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조건들을 기준으로 수치화한 것일 뿐,
실상은 앞의 세 가지에서 1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행복'에 대하여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불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 열반을 추구해야 할 출가 수행자가 행복을 주장하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성도 후에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에 사성제는 고통에 대한 진리로 시작합니다.
고苦의 소멸이 열반이며, 열반에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고 하는
4가지 덕德이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또한 불교입니다. 열반의 즐거움을 전통적으로
안락安樂이라는 표현을 써오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행복이란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소승은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불성(행복 유전자)을 가진 누구에게나
'행복 자주권'이 있다고 말입니다. 행복 자주권, 결정권,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옛날 임제선사는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환경에 처하든 주인, 주도자가 되라는 가르침으로 소승은 이 말씀을 자기의 행복 자주권,
결정권, 주도권을 남이나 외부에 넘기지 말고, 스스로 행사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주변의 누군가에게, 세상에, 사건 사고에 따라 내 마음의 평화가 결정된다면
이미 행복 자주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냉철하게 자기의 행복 자주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탄생 시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고 하신 이 말씀도 세상이 나의 비위를 맞추어서
내가 높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본디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 자주권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무렵 말씀하신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도
먼저 자신의 참된 성품을 의지하고, 탐욕-성냄-어리석음을 제거하라는 등의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결국에는 자기의 행복 주도권을
남에게 의탁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행복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으로
소승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빌려 쓰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빈손'이라는 자세로 만족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항상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과 안락은 소유의 산물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즐기는 것, 다시 말해 삶의 과정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생現生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억울한 일들이
전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은 상대의 일방적인 공격이나 원결을 전생의 일과 연결 지어 풀어내셨습니다.
'다겁생래多劫生來의 삶에서 이런 부당한 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으로써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법화경》에서 부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다를 전생 인연을 들어 수기까지 주셨습니다. 행복 자주권을 지키려는 입장에서는
원수도 없고 억울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깥일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의 행복 자주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식은 하되, 덕으로써 대처하는 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덕담과 험담은 대인배와 소인배, 또는 지도자와 추종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릴 안락과 행복은 이미 자기 안에 엄연히 있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모자라지 않을 만큼, 써도 써도 충분히 있습니다.
부디 이를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지스님 법문

# 팔정도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불자 여러분. 괴로움이 닥칠 때 그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사유해 보십시오. 괴로움의 실체는 본래 없는 법, 파도처럼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대로 당당히 받아들이면 그 괴로움은 저절로 소멸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이 괴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사람들을 환자에 비유하여, 아픔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진단하고, 그 결과 당신의 병명은 이것이며 그 병은 여기서 연유한 것이고 반드시 고칠 수 있으니 이렇게 노력하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요.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팔정도八正道입니다.

여덟 가지 바른길. 팔정도는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을 말합니다.

**첫째, 정견은 바른 견해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지 않고 대상을 여실히 보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실상을 알 수 있다고 사성제를 바로 보는 것 정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정사유는 바른 생각 혹은 바른 결심입니다.**

바로 본 다음 깊이 생각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전에서는 감각적인 욕망, 나쁜 의도, 남을 해치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러운 생각이 아닌 맑고 밝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정어는 바른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말, 아부하는 말이 아닌 곧은 말, 이간질하는 말이 아닌 화합하는 말, 험악한 말이 아닌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정업은 바른 행동입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말 것이며,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이며, 불순한 남녀관계를 갖지 말 것이며, 술을 지나치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계율로 정했지요.

**다섯째, 정명은 바른 생활입니다.**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익을 주는 일을 해야지, 사기나 도박을 하게 한다거나 임금을 착취한다거나 기업을 경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방출한다면 그것은 바른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섯째, 정정진은 바른 노력입니다.**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용기와 실천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곱째,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 마음이 깨어 있음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여덟째, 정정은 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온갖 번뇌와 망상을 가라앉혀 마치 고요한 바다의 심연처럼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한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명상 참선이라고 하지요.

불자 여러분. 사는 것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지금 닥쳐오든 나중에 닥쳐오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보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십시오. 또한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자신에 깨어 있으며 바르게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 법설法說과 의설義說에 대하여 (1)

고광 스님 법주사 노전

저번 호號에서는 '유기有記와 무기無記를 이해하는 것'이 진리眞理와 주장主張을 판별해 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key word)임을 간단하게나마 밝혔습니다. 만약 진리를 탐구하는 자가 이것이 유기有記인지 무기無記인지를 따지지 않고 무작정 진리를 찾아 길을 나선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수행자라면 유기와 무기를 알아야만 부처님께서 제시한 해탈의 길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기에 중언부언重言復言하며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 법설法說과 의설義說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대장경大藏經을 검색해 보면 법설法說과 의설義說이 꽤 많은 빈도수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설法說이 무엇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말씀이겠거니 어림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설義說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경을 검색하다 보니 "梵有義說 , 正似亂辭" (역대삼보기 8권 ABC, K1055 v31, p.540c04), "胡有義記 , 正似亂辭" (출삼장기집 8권 ABC, K1053 v31, p.344b23) 등의 몇 군데에서 위와 같은 구절이 등장했는데, 그 뜻은 "범본梵本에는 의설義說이 있는데 중국말의 난사亂辭와 비슷하다."입니다.
그렇다면 난사亂辭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2가지로 정의되는데, 하나는 '시문詩文을 읽고 그 끝에 감상평을 적은 것'이고, 또 하나는 '경우에 맞지도 않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첫 번째의 의미로 모두 번역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대장경에 의설義說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다 말고 갑자기 감상평을 말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자세히 읽다 보면 법설法說과 짝을 이루어서 의설義說이 설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전字典에서 의義 자를 찾아보면 '옳다'는 뜻도 있지만, '거짓'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글자의 자원字原을 보면 '염소(양)'를 나타내는 양羊자 밑에 나를 나타내는 아我 자가 놓인 형태이니, 곧 '양가죽을 쓰고 있는 나'라는 의미로 시작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양가죽을 뒤집어썼기 때문에 '거짓, 위선' 등으로 쓰이던 글자가 나중에는 양가죽을 쓰고 있기에 익명성이 보장되어 '올바른 말을 한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게 되어 지금은 '옳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강원講院이나 대학大學에서 '한문은 음통즉의통音通卽意通이라는 기본전제가 깔려 있다.'라면서 의義자가 나오면 의意자로 치환해서 읽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례 의설義說을 의설意說로 바꾸어서 읽으면서 '진정한 의미를 설한 것'쯤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심각한 오류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설의 설명과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의설이 함께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는 사대설四大說을 주장하고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필자도 절집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모든 존재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사대로 이루어졌기에 각각의 땅(地), 물(水), 불(火), 바람(風)으로 흩어지고 나면 실체가 없으니 '무아無我'이고, 그래서 '나는 없다.'라는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 적취설積聚說을 주장했던 신흥사문新興沙門들이 했던 말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었다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후에 그 말이 틀림없다면서 동의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외도外道의 의견을 64가지로 분류하고 일일이 반박하면서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법설法說로 설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설법에는 '바르다(正)'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팔정도八正道만 살펴보더라도 '바르지 못한 여덟 가지가 바로잡혀야만 비로소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여어자如語者 실어자實語者 불이어자不異語者 불광어자不狂語者를 부처라고 부른다.'라고 스스로 정의하셨으니, 만약 사대四大로 이루어졌기에 무아無我라고 가르쳤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스란히 훔쳐다 마치 자신이 깨달은 것처럼 꾸며서 가르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금강경에서 정의한 '부처가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일 것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내용을 밝히려고 번역자는 언제나 의義 자가 붙여서 법설과 의설을 구분해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승의勝義, 제일의제第一義諦, 요의了義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승의(勝義, 빠라마타paramatha)를 살펴보면 시설(施設, 빤야티paññatti)이란 말과 함께 경전에 등장하는데, 시설(施設, paññatti)을 남방불교에선 '개념'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승의(勝義 paramatha)는 '근원적인 실체로

반드시 관찰해야 하는 대상'으로 가르치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핵심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한문본에는 번역자가
친절하게 의義자를 붙여서 '근거 없는 주장'임을
드러나게 표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제일의제第一義諦는 속제俗諦와 진제眞諦와 함께
용수(龍樹 नागार्जुन : Nagarjuna)스님이 쓴
중론中論에 등장하는데, 이 제일의제第一義諦를
세속의 진리인 속제俗諦와 진정한 진리인
진제眞諦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떠난
최고의 진리'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마치
변증법辨證法에서 말하는 정반합正反合의 관계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의義가 쓰여 있으니
'거짓말'로 바르게 이해한다면 제일의제第一義諦는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론中論의 게송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 의미가 훨씬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요의了義는 불요의不了義라는 말과 함께
설명하는데, 경전에서 최상의 진리를 설한 경전은
요의경了義經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불요의경不了義經이라고 전통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의경이란 '거짓 주장을 깨닫게
하는 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의了義'라는
글자가 들어간 경들을 보면 외도의 주장과
수행 방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원각경圓覺經으로, 이 경전의 원래 제목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인데, 그 뜻을 풀어보면 '대승의 원융한 감각에
대한 경장과 거짓 주장을 깨닫게 하는 경전'입니다.

또한 능엄경楞嚴經의 원제목이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니,
위에서 밝힌 '의義'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숙지했다면 제목만 읽더라도 대충 무슨
내용으로 전개될 것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것과 정반대라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경初轉法輪經에서 적멸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 곧바로 제시한 것이
팔정도八正道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해탈하려면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방편을
통해야 적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전에서 법설法說을 말하는 것인지,
의설義說을 밝히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읽는다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이 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저 경에선 저렇게 말하는 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줏대도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설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은 부처님의 경전을 읽었던
옛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횡설수설橫說竪說이란 말도 나온 것이겠지요.

〈다음호에 계속〉





# 광명진언 다라니

지현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오늘은 그동안 광명진언 다라니 기도를 하시면서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우리 법주사 불자님들을 위해 광명진언 다라니는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옴 아모카 바이로 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 바릇 타야 훔"

이 광명진언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지혜의 힘으로 새로운 태어남을 얻게 하는 신령스러운 힘을 지니고 있어서 아무리 깊은 죄업과 짙은 어두움이 마음을 덮고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광명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맑아지고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 진언을 이해하고 외워 영험을 얻는 원리입니다.

일찍이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께서는 그의 저서 《유심안락도》에서 이 진언의 공덕을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중생이 이 진언을 두 번이나. 세 번, 또는 일곱 번을 귀로 듣기만 하여도 모든 죄업이 없어지게 되고. 또 중생이 십악과 사역죄 와 사중죄를 지어 죽은 다음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이 진언을 외우면 능히 해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그릇에 흙이나 모래를 담아놓고 이 진언을 108번 외워 그 모래를 시신 위에 흩거나 묘지 또는 묘비 위에 흩어주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망인에게 이르러 모든 죄업을 소멸시켜 줄 뿐 아니라 서방 극락세계의 연화대로 인도하게 됩니다.

비록 남이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는 이치는 없다고 하지만, 인연만 있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힘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진언을 외우고 보리를 뿌려보라. 곧 새로운 인연이 맺어질 것입니다.

모래를 묘지 위에 흩는 것만으로도 극락왕생 하거늘, 하물며 진언으로 옷을 지어 입고 소리를 내어 외우면 어떠하겠습니까? 모래를 흩는 공덕보다 진언을 외우는 공덕이 더 수승함은 말할 것도 없이 수승합니다.

실제로 원효대사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바가지에 강변의 깨끗한 모래를 담아 이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다음, 그 모래를 묘지나 시신 위에 뿌려 영가를 천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법주사불자님들도 성묘 또는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이러한 모래를 준비하여 조상들의 묘 위에 뿌려줌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상을 당했을 때, 절에서 49재를 지냄과 동시에 그 49일 동안 집안에서 매일 광명진언을 외워주면 영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좋은 기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광명진언은 우리 자신이 만든 모든 부정적인 악업의 진동을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써 소멸시키고



빛의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이 진언을 듣는 영가님들은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극락 왕생케 하며,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있는 악업의 때를 소멸시킴으로써 모든 일이 원만 대조화의 상태로 있을 수 있게 하는 제불보살님의 총주이다.

이 광명진언은 올바른 의식 상태에서 제대로 발성하면 내부에서부터 정묘한 진동을 일으켜 우리 자신을 정화시킨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급한 마음으로 아무의미 없이 외우지 말고,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염송하면 그에 응한 효과는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광명진언을 외울 때는 눈 ,귀 ,코 ,혀, 몸의 오감적 감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감각을 초월한 세계에서는 엄청난 빛의 파동으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염송할 광명진언을 간략하게 설명해본다.

"옴 아모카 바이로 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 바룻 타야 훔"

**옴 ( Om ) 은**

모든 진언의 근본 음이며, 옴자 에서 귀명의 뜻이 있다. 시방 삼세에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의하여 부처님의 광명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외운다.

**아모카 ( Amogha ) 는**

내 마음의 북방에 항상 계신 불공성취불의 명호이다. 불공성취불은 성소작지의 덕에 머무르며 일체중생을 위하여 가깝게 사바세계에 모습을 나타내어 교화하시는 역사상의 부처님 곧 석가모니불을 가리킨다.

**바이로 차나 ( Vairo cana ) 는**

내 마음의 중앙에 항상 계신 비로자나불 곧 법신불의 명호이며, 대일 여래라고도 한다.

법신불은 부처님의 진리의 몸으로서, 마치 태양이 세간의 어둠을 없애고 일체의 만물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시방 삼세의 온 우주법계에 두루 충만하여, 무한한 빛을 비추는 우주적 통일체의 상징으로서 '광명의 부처님'을 가리킨다. 법신불은 법계체성지의 덕에 머무르며 일체 천지만물 속에 내재하는 불신으로 사람을 포함한 온갖 삼라만상의 근원이다.

**마하 무드라 ( Maha mudra ) 는**

내 마음의 동방에 항상 계신 아촉불의 명호이다.

아촉불은 대원경지의 덕에 머무르며 우주법계의 만상을 명료하게 조견하고 중생의 번뇌를 퇴치하여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보리심을 개발하여, 해탈케 하시는 부처님이다.

대원경지란 우주 법계의 만상을 여실하게 현현하는 지혜로 일체를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청정한 거울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마니 ( Mani ) 는**

내 마음의 남방에 항상 계신 보생불의 명호이다.

아미타불은 묘관찰지의 덕에 머무르며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여 의심을 끊게 하고, 대자비로 일체 중생을 섭수하여 극락정토로 이끄시는 부처님이다.

**파드마 ( Padma ) 는**

'연꽃'을 의미하며,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피어나는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즈바라 ( jvala ) 는**

광명光明, 불타오르는 불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프라 바룻 타야 ( Pra bar taya ) 는**

이상에서 말한 "부처님의 광명이여! 그 빛을 발하소서"라는 뜻으로, 이 부분을 염송할 때는 자신의 안으로부터 부처님의 광명이 솟아나와 사진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충만 되어 있는 모습을 마음에 뚜렷하게 그리고 그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 이웃과 우리나라 전 세계 우주법계로 두루 퍼져 모든 중생들이 그 빛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을 심상화한다.

**훔 ( Hum ) 은**

모든 진언을 마무리 짓는 근본 음이며,

훔자를 외울 때는 이상에서 말한 오불의 지혜 광명이 자신 안에서 종합 완성된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모든 부처님들께 지극한 감사와 귀의를 다짐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법주사 불자님들이 매월 첫째 토요일에 광명진언을 염송할 때는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하지 말고, 염송 중의 마음가짐은 모든 망상을 떠나 완전히 진언의 문자 위에 마음을 모아 심상화하면서 반복해서 108번이나 1000번 등 또는 시간을 정해서 염송 형편에 맞게 외웁니다. 그러면 우리 법주사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모든 복이 올 것입니다.

# 바람이 낙엽을 쓸어줄 것인데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자주 오가는 벗이 혼신으로 정원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애써 가꾸다가 눈에 밟혀 나중에
어찌 두고 떠나려 하느냐?"고 걱정을 보태 물었다.
나는 웃으며 "지금, 기쁨을 주는 건 이 일"이라
대답했다. 이런 나의 열정이 어느 때,
깡그리 식을 수 있다. 그러나 꽃을 만지고
가꾸는 이 일보다 더 기쁨을 주는 일이 아직은 없다.
늘 나를 설레게 하고 나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든다.
그러니 지치지 않고 계속 그 영역을 넓히며
일을 키우고 있다.
물론 어떤 시점에서 취미의 변화가 올는지
모르겠으나 열정과 체력이 받쳐 주는 한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
오늘도 이른 저녁을 먹고 잔디를 깎고 풀을 솎았다.
우기 때엔 무슨 게릴라 작전하듯 치고 빠져야 한다.
잠시 비가 그쳤을 때 작업하다가 다시 비 내리면
철수하는 것을 되풀이하여야 풀 천지가 되지 않는다.
장마 끝난 뒤 한꺼번에 하려면 지쳐서
오히려 더 힘들다는 것을 익혀 왔기 때문이다.
정원 관리에서 제일 무식한 행동이 '풀을 모았다가
뽑겠다'고 호언하는 것이다.
모아두면 모아둘수록 풀 종류는 다양해지고
무성해지는 습성을 모를 때 하는 말이다.
그땐 기가 질려서 엄두도 내기 어렵다.
그래서 나의 소신은 '시간 될 때 조금씩'이다.
어제도 비 그친 틈을 이용하여 게릴라 전술을 펼쳤다.
목수국 정원에 제초 매트를 넓게 깔고
단단히 고정해 두었다. 며칠 전 이틀에 걸쳐
풀 맨 곳이었는데 다시 무성해지는 것을
예방한 것이었다. 내 성격엔 미관이 좋지 않아
미루다가 풀이 무서워 시도해보았다. 이제는 풀에
점점 지쳐가는 때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해 보고 있다. 나무 쪼갠 조각을 깔기도 하고,
왕겨도 깔아보면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가를
실험 중이다.
그러나 호미만큼 효과적인 도구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 일엔 힘든 노동이 제공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저절로 정원이 형성된다는 논리는
언감생심 불가능한 일이다.
결코 하룻밤에 덜렁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세월과 노력이 받쳐 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거제도 공곶이에서 수선화 정원을 개간하여
명소로 만든 노부부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었다.
굽은 허리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그 넓은 공간을 가꾸는데 건강이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90세가 넘은 나이에
언제까지 가능할까 싶었으나 한편으론
내일 생이 끝나더라도 저분들에게 저 일이
행복이겠구나 싶었다. 일생을 두고 만들어
온 두 분의 역작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꽃밭을
선물한 것이다. 이름보다 더 빛나는 꽃밭을 남겼으니
이보다 훌륭한 일은 없다.
나도 꽃그늘 아래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병원에서 맞이하는 죽음보다 훨씬 더
존엄한 마무리일 것이다.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다가
저 생으로 갈 수 있다면 그만큼 보람된 삶도 없으리라.
아무튼 정원 일은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매일매일
할 일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열정 넘치게 한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하며 즐길 뿐
더 이상의 미련이나 집착은 없다.
어느 낡은 암자에 젊은 스님이 하룻밤을 머무는데
암주庵主도 떠난 듯 텅 비어 있었고
벽에 시를 쓰다 완성하지 못한 채 바래져 있었다.

적적한 산간의 암자
더욱이 뒤를 이을 제자 하나 없네

여기까지 짓다가 그다음 행간을 채우지 못하고
옛 주인은 떠난 듯 했다. 아마 산중암자의 노스님이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열반한 것일까.
그 시를 읽고 젊은 스님이 댓글을 달아
그 시를 완성했다.

하지만, 바람이 절을 쓸고
달이 법당을 밝히거늘 무엇을 걱정하랴

그날 밤 꿈에 암자를 지키던 노스님이 나타나
'고맙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절이 염려되어 그 산중을 떠나지 못하던 노스님의
애착을 비로소 해소해 준 것이다.
사후에 무엇을 걱정하랴, 청풍명월에 맡겨 놓으면
될 것을...미리 그 후사를 걱정할 필요 없다.
나도 그럴 것이다. 여기에 매이면 그 노스님처럼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중음신이 되어 떠돌지도
모를 일. 그러므로 나중에는 다른 인연이
이 도량을 수호할 것이라 믿으며,
설령 후계가 없다 한들 무슨 걱정일까.
바람이 낙엽을 쓸어주고 달빛이 법당을
밝혀줄 터인데.



##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 절
## 법주사

누구나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꽃이
빛깔도 곱고 향기도 있는 경우처럼
좋고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복을 얻는다.

–화향품 10장–

## 2024. 10 법주사 행사일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 1 음 8.29<br>합창단법회<br>국군의날<br>임시공휴일 | 2 30 | 3 개천절 9.1<br>초하루 신중기도입재<br>보현회 법회 | 4 2 | 5 3<br>신중기도회향<br>광명진언기도 |
| 6 4 | 7 5 | 8 한로 6 | 9 한글날 7 | 10 8<br>약사재일 | 11 9 | 12 10 |
| 13 11 | 14 12<br>다도반법회 | 15 13 | 16 14 | 17 15<br>보름 | 18 미륵재일 16<br>이두대종사 다례<br>함께하는 십만송이 국화축제 | 19 17<br>다라니독송기도<br>법주회 법회 |
| 20 18<br>지장재일 지장회법회 | 21 19 | 22 20 | 23 상강 21 | 24 22 | 25 23<br>전통등 경연대회 | 26 24<br>관음재일 |
| 27 25<br>청소년 사생대회 | 28 26<br>다도반법회 | 29 27 | 30 28 | 31 29 | | |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법주사 소식



9월 3일 초하루 법회




9월 4일 쌀소비촉진 상생협력 충북농협, 법주사 MOU 체결



9월 17일 추석합동차례



9월 19일 금오대종사다례




9월 24일 법주사 성보박물관개관식

## 미륵재일 기도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법주사에서는 매월 음력 16일 미륵재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미륵부처님의 가피 받으시어
불자님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기도일정** 2024년 **10**월 **18**일 〔매월(음) **16~18**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 초하루 신중기도

매월 초하루 3일간 올리는 신중기도는 매월초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게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을 잘 열어가기 위한 신심의 발로입니다.
화엄성중님께 예를 다하여 정성껏 기도해 보세요.
그 가피공덕이 세세생생 전해 질 것입니다.

**기도일정** 2024년 **10**월 **3~5**일 〔매월(음) **1~3**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 광명진언기도

광명진언은 '광명'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진언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인연 지으시어 공덕이 나날이 수승해지며
늘 성취하시는 일상을 이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일정**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2시까지)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 지장재일 기도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도나 공양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제자로
정진하겠다고 발원을 세우고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고 발심을 할 때 비로소 그 원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는 공덕을 지으셨으면 합니다.

**기도일정**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매월(음) **18**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미묘하고 거룩한 큰 말씀이란 뜻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비의 주문으로 병고를
겪거나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중생들을 치유하는데 영험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인연 지으시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안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일정**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2시까지)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 생일불공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없이 기쁜 날, 신도님과 신도님 가족분들의 생신을 맞아
부처님전에 정성으로 앞날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축원공덕 지으세요!

**동참보시** **2**만원 (생신일로부터 3일간 기도축원 올려드립니다)

**법주사 기도동참 계좌안내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 자세한 일정은 QR코드 확인

세계문화유산 법주사

# 함께하는 십만송이 국화축제

**2024. 10. 18. (금) ~ 11. 3. (일) | 법주사 경내**

평일 09:00~18:00 | 주말 09:00~21:00

**개막행사**

**10.18. (금) 10:00**

10:00 개산대제
11:00 백미백락
15:00 문화공연 및 초대가수공연
초대가수 은가은, 재하, 윤준협

**문화공연**

· 캘리퍼포먼스 · 주말음악회 · 버스킹공연 · 각종문화행사



성보박물관 개관기념

# 그리고 만들고

## 사생대회

**사생대회 일정**
2024.10.27.(일) 10:30 - 15:00

**참가신청**
2024.10.25.(금) 18:00 까지

**접수 및 종이배부**
10:00 - 10:30(4절지 배부)

**준비물**
물감,크레파스 등 화구일체, 돗자리

**참가부문**
초등부(저학년 1-3학년, 고학년 4-6학년)
중등부 / 고등부

**심사 및 입상자 발표**
2024.10.27.(일) 16:00

**시상내역**

| 순 위 | 수상자수 | 상 금 |
|---|---|---|
| 대 상 | 1점 | 50만원 |
| 최우수상 | 1점 | 30만원 |
| 우 수 상 | 2점 | 20만원 |
| 장 려 상 | 3점 | 10만원 |

접수QR

## 전통등 경연대회

**전통등 경연대회 접수**
2024.10.25.(금) 18:00 까지

**일반부문**
대 상 일반 성인 및 연등공방 회원
제출작품 연꽃등 / 팔모등/ 수박등

**어린이부문**
대 상 유치부 및 초등부
제출작품 연꽃등/ 팔모등/ 수박등

**제출 규격**
지름 30cm 이내(일반, 어린이부문 공통)

**심사 및 입상자 발표**
2024.10.27.(일) 16:00

**시상내역**

| 순 위 | 수상자수 | 상 금 |
|---|---|---|
| 최우수상 | 1점 | 50만원 |
| 우 수 상 | 3점 | 30만원 |
| 장 려 상 | 5점 | 20만원 |
| 입 선 | 10점 | 10만원 |

**접수처**(이메일 or QR링크)
사생대회&전통등 경연대회 공통
완제품 방문접수 또는 택배(파손주의)

문의 및 단체접수 043)543-3615
E-mail
beopjusa05@naver.com

**접수처**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법주사 국화축제 추진위원회) **주 최** 법주사 **후 원** 능인문화원, 성보박물관